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온라인수업을 준비하면서—

도쿄조선고급학교 교원
백명희

아이들이 없는 교실에서
오늘도 혼자 인사를 하네
—학생동무들 안녕하십니까

학생없는 교실이
학생없는 운동장이
학생없는 교사가
이렇게 쓸쓸한줄 처음 알았네

30년을 넘는 세월
매일처럼 다닌 도쿄중고
이 아담한 배움의 보금자리가
어느덧 자기의 집이 되고
교문에 들어서면 들려오는
민족악기소리, 학생들의 노래소리
교실에 들어서면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어느덧 나의 생활이 되고
어느덧 나의 가족이 되어
그 무엇에도 바꾸지 못할
마음의 요람이 된 우리 학교

그러나 알았네
이 모든것은 학생들이 있어야 존재하고
우리 학생들이 있어야
살아있는 우리 학교라는것을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오늘도 혼자 교단에 설 때

집에서 화면너머 선생님을 바라보고있을
그리운 학생들의 얼굴 그려보며
나는 느꼈네
이것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
어서빨리 이 교실에서
활기있게 학생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싶구나

안녕하십니까!!